

# 학술서적 번역의 질

곽광수

서울대 교수·불문학

우리나라의 출판계를 되돌아보면, 나의 대학생 시절이던 60년대와 오늘날 사이에는 정녕 격세지감이 있다. 오늘날 대학생들은, 옛날에는 소설가들의 주활동 무대가 잡지였고 따라서 주된 소설 장르가 단편소설이었으며 전자장편 출판이란 상상도 못했다는 것을 잘 모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설이, 게다가 시까지도 베스트셀러가 되어 억원이나 천만원 단위의 인세 수입을 가져오고 이른바 전업작가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옛날에는 꿈에도 그리지 못했다. 물론 이것은 격세지감을 주는 출판계의 발전의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기획단계에서 광고·배포 단계에 이르기까지 책의 저작·출판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 변화의 정확한 양상을 출판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내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변화가 엄청나다라는 것은 조금씩 들은 이야기로 상상되는 바이다. 그 모두가 경제발전에서 오는 생활의 윤택, 한글세대의 부상에서 오는 독서층의 확대 등에 기인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된다.

이와같은 엄청난 변화 가운데서 아직도 그리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국면이 학술서적의 번역과 출판이다. 물론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저서이든 역서이든 화제적인 학술서적은 상업적으로도 손해를 보지 않는 예가 드물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학술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있어서 학술서적 번역에도 제공되는 지원이 나타난 바 있는데, 이 사실 또한 학술서적 번역에 어느 정도 자극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어쨌든 양적인 측면은 앞으로도 계속 나아지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예나 이제나 거의 한결같다고 느껴지는 것이 학술서적 번역의 질적인 측면이다. 여기에는 역자로 하여금 번역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하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흔히 거론된 것으로 우리나라 대학사회에서 공식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번역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어째서 이런 경향이 생겼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얼마나 그릇된 생각인지는 논의된 바가 더러 있었으니, 다시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학술서적의 번역과 그 전체적인 해설 및 주해가 논문과 동등하게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제의 하나가 된다는 것만을 말해 두기로 하자.

어쨌든 오늘날 학술서적 번역이 도달한 어느 정도 고무적인 양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번역 출판된 학술서적들 가운데 원전의 내용을 훌륭하게 전달하는 것이 예외적으로만 발견된다는 데에는 사정을 제대로 아는 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내가 문학교수인 만큼, 문학쪽에 대해 한마디 뽐죽한 말을 한다면, 문단을 통해 문명을 얻은 대학교수 필자들이 번역한 역서들 가운데, 그들의 애독자들이 가히 상상하지도 못할 오류투성이 책들이 신문·잡지에 훌륭한 것으로 소개되고 널리 알려지고 인용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와 같은 질적 상황에 대한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 우선 물론 역자 자신 원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겠다. 문학이론서의 경우,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싶다. 다음, 역자가 원문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도 그 이해를 명료한 우리말 표현으로 옮기지 못했다는 것도 있다. 글재주가 있다고 명료한 번역을 이루어내지 못한 예는 쉽게 눈에 띄는데, 원문의 언어와 우리말의 논리적 구조에 대한 의식이 날카로와야 할 것 같다. 또 교정문제도 있다. 출판사 교정사원의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원하는 교정 오류와, 역자 자신의 교정에 대한 무관심에 비롯되는 교정 부실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자각이 근년 조금씩 생기고 있으니, 앞으로는 희망적인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표지인물	2 「서양근대사상사연구」 등 펴낸 차하순교수
양케이트	4 명사들이 추천하는 이 가을 이 한권의 책
연재기획	6 책은 어떻게 사물을 탁월케 하는가- 김상환 책의 존재와 사물의 존재 7
쟁점	8 탈춤 연구의 진정한 쟁점은 따로 있다- 임재해 이훈상교수의 비판에 답한다
서평	10 본 텀포 외 「미네르비의 올빼미」- 박은진 브라이언 매기 「위대한 철학자들」- 이한우 11 올리비에 르블 「언어와 이데올로기」- 정과리 폴 스타 「의사, 국가 그리고 기업」- 조병희 12 김진영 「정보기술과 화이트칼라노동」- 강희경 김국신 외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통일」- 최완규 13 최영박 「자연의 물 인간의 물」- 권숙표
시집서평	14 이미 지나온 길 이제 가야 할 길 - 조영복
출판화제	16 학생들 위한 환경운동 학습서 쏟아진다
연재기획	18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그리다 - 이호백 지금 이곳의 우리들 어린이책을 위하여 4
이색출판	21 금석문 연구로 고대사 비밀 캔다
이 책 그 사람	22 「철학으로 영화보기...」 낸 김영민씨 「웃음의 해석학 행복의 정치학」 낸 김종엽씨 23 「탈출」 낸 문충일씨 「우리시대 결혼이야기」 낸 김효선씨
리포트	24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해외출판	26 도서전달의 '수퍼하이웨이' 건설된다 - 유은영
세계의 책	28 아메리칸 드림의 어두운 그늘 '알 카포네' - 배병삼 30 독자서평 32 화제의 신간 34 신간안내 42 어린이책 들춰보기 44 200자 안내 48 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 안내

표지사진/김흥진

## 오직 기자만을 양성합니다 ⑤

### 선배기자들의 사랑방

(오직 기자만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지난 삼 년 간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광고문안에 '기자'를 넣어 이곳과 비슷한 교육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도 여럿 있습니다. 대자본이나 유명 언론인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저널리스트 아카데미는 그리 큰 규모도 아니고 유명세를 앞세운 언론인도 없습니다.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선배기자들이 후배를 가르치는 場, 선배기자들의 사랑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 크다고 공부 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자모집/대재 및 졸업자(전공무관), 현재 접수중  
입학상담/(02)747-1991 취업보도실/(02)747-1993

대학로 파리크라상뒤 30m (4호선 혜화역)

한국저널리스트아카데미  
KOREA JOURNALIST ACADEMY

